



한국진공학회의 역사 - 2

[기록의 역사, 학술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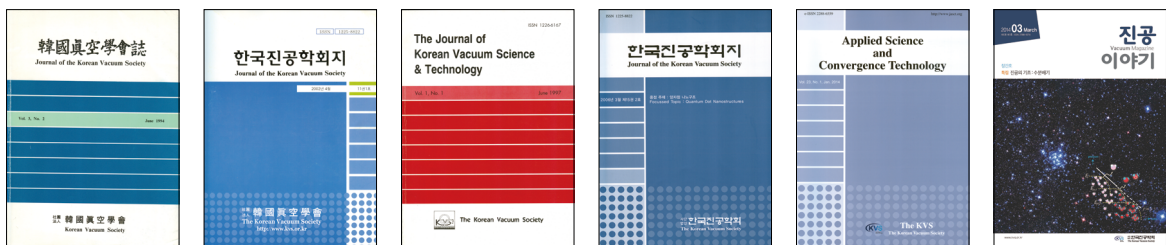
주정훈

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을 보면 미국의 경우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,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, 뉴멕시코의 Chaco 문화역사공원 등 주로 건축물이다. 그러나 1995년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판전이다.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해온 우리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세계 유일의 역사서를 500년 동안 만들어 냈고 소실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내고 실천하여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다.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. 특히 어전 회의 때 두 명의 승지가 기록을 담당하면서 한 사람은 대화 내용 그 자체를 기록하고(한자로!) 나머지 한 사람은 대화의 분위기를 묘사하였다고 하니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. 3년에 겨우 33명만 과거를 통해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거기서 장원 급제자와 차석 정도만 정규직으로 바로 발령을 받을 수 있었던 때에 만들어진 기록들은 기전체와 편년체를 조합하여 적고 있다. 기록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철저히 실천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부지런함에 놀란다.

우리 한국진공학회는 출범과 더불어 열심히 학술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. 지금까지 모두 네 번의 판형 변경을 거쳐 온 셈이다. 그림 1에 보이는 것처럼 초기의 漢字제호에서 도중에 휴간의 비운을 맞은 영문 저널 JKVST, 글로벌 학술지로의 비상을 목표로 올해 출범한 전자저널 ASCT, 회원들에게 편하게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을 터 놓은 진공 이야기 등이다.

한국진공학회지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 과학기술학회마을에 수록되어 있다. 110권에 1,469건이

올라 있으며 그 외에도 영문판, 학술대회논문집등이 관리되고 있다. 창간호인 1권 1호는 1992년 2월에 발간되었으며 모두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. 흥미로운 것은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신 정근모 박사님의 논문과 함께 창간호에 논문을 실은 분들 중 이순보, 손기수, 정광화, 박종윤 회원은 나중에 우리 학회의 회장으로 봉사하였다. 또, 오세정 회원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, IBS(기초과학연구원)원장을 하였고 정광화 회원은 KBSI(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) 원장, 신용현 회원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,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과학 기술계에 큰 봉사를 하고 있다. 기관자료 통합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제목, 초록, 키워드, 저자 별로 나누어서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다. 저자의 경우 한국진공학회지에 10편, 학술대회논문집에 50편(2013년까지)이 검색되었다. 매년 7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는(<http://kstam.kofst.or.kr>)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함께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이 시상되는데 전년도에 당해 학회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학회의 추천으로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. 2014년도에는 강원대학교의 류미이 교수가 수상하였다. 2014년도에 우리 학회 저널인 ASCT에 가장 우수한 논문을 실는 회원은 2015년도 과학기술우수 논문상의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한국식물분류학회지의 경우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 수상을 한 점을 보면 이 글을 읽는 대학원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.



[Fig. 1] 한국진공학회가 발간해온 각종 학술지와 뉴스레터



〈저자 약력〉

주정훈 교수는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KIST, GoldStar Electron 반도체 연구소를 거쳐 1992년부터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. 1996, 2005-2006 미국 New York의 IBM T.J. Watson Research Center 객원교수, 2012-2013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객원교수, 현재 <플라즈마 융합 공학 대학원> 학과장, 한국진공학회 정회원(1993년~)이며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. (jihoo@kunsan.ac.kr)